



조간 제7830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음력 3월 27일)



① 기아 타스만 인테리어 모습.
② 타스만 내부 1열과 2열.



22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정문에서 무등산 일원까지 40km 구간을 운행한 '더 기아 타스만' 시승차량.

기아제공

K-픽업트럭의 새로운 기준... SUV급 승차감

기아 첫 정통 픽업 돌풍 예고
그라운드 뷰·듀얼충전패드 등
주행보조 편의기능 탑재 만족
진흙탕 경사로 거침없이 질주
넓고 여유로운 실내·적재공간



'더 기아 타스만' 시승기

기아의 첫 정통 픽업트럭 '더 기아 타스만(타스만)'이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타스만은 지난 2월 13일 출시 이후 보름 만에 4000대가 팔렸다. 지난해 전체 픽업트럭 판매량(1만3475대)의 30%를 팔아치운 성과다. 특히 오프로드(비포장도로) 전용으로 만들어진 'X-프로(X-Pro)' 트림이 계약 물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RV(레저용차량)의 명가' 기아가 4년동안 공들인 타스만을 만났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정문을 출발해 동문대로와 가사문학로를 거쳐 광주호, 무등산 생태탐방원, 충장사 등 무등산 일원을 돌아오는 40km 구간을 90여분간 시승했다. 특히 기대했던 오프로드 체험은 20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험로에 특화된 X-프로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비가 내려 질척한 진흙탕과 풀숲 주변에 음푹 패인 웅덩이를 거침없이 통과했고, 가파른 경사도 부드럽게 올라갔다. 비좁고 울퉁불퉁한 내리막 길을 후진할 때도 차량 전방과 하부를 보여주는 '그라운드뷰 모니터'를 이용해 2에 달하는 차체가 흔들림 없이 내려올 수 있었다. 실제 타스만은 흡기구를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펜더 내부 상단에 적용하는 등 80cm 깊이의 물을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도하 성능을 갖췄다고 한다. 시승자들이 "제대로 한번 달려보고 싶다", "탐난다"는 반응을 연발했을 정도로 오프로더를 소유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했다. 기아는 험로 주행 능력, 내구성, 적재 용량

등 픽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중형 SUV 못지않은 승차감과 2열 실내공간,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해 '픽업의 로망'과 데일리카의 상품성을 동시에 녹여냈다는 평을 받는다. 가장 돋보인 점은 SUV 못지 않은 정숙성과 주행성능이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흡차음재 보강 등 NVH(소음·진동) 개선에 힘썼다는 기아의 설명대로 노면 소음은 물론 풍절음을 굉장히 잘 잡아줬다. 주행 성능은 기술된 2.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대 출력 281마력, 최대토크 43kg·m로, 어떤 장애물에도 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뚫어나갔다. 차체 무게가 있다 보니 가속은 다소 아쉬웠지만, 주행속도에 비해 체감하는 속도는 더 낮은 듯한 안정감을 줬다. 40km 이상의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방지턱을 넘어보니 뒷자리에서도 진동과 충격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주행 질감을 뽐냈다.

실내 공간도 여유롭고 고급스러웠다. 각 12.3인치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 5인치 보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했고, 두 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듀얼 무선 충전패드로 편의성과 수납공간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 2열에 동급 최초로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를 적용하고, 도어를 최대 80도까지 열 수 있는 '와이드 오픈 힌지'와 시트를 위로 들어 올리면 나오는 29ℓ 대용량 트레일러를 적용했다. 적재 공간(베드)은 길이 1512mm, 너비 1572mm, 높이 540mm를 갖췄으며 약 1173ℓ(VDA 기준)의 공간에 최대 700kg을 적재할 수 있다. 기아는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까지 출고하는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1년간 이자만 납입하고 2년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저지형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금호타이어, '엑스타' 이벤트
8월 30일까지...할인쿠폰 지급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초고 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ECSTA SPORT S)', '엑스타 스포츠(ECSTA SPORT)', '엑스타 스포츠 A/S(ECSTA SPORT A/S)' 출시를 기념하며 8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호타이어와 타이프로 홈페이지의 추천인코드를 발급받아 지인에게 추천인 코드와 행사 링크를 보내면 추천 받은 고객은 해당 링크를 통해 신제품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엑스타(ECSTA) 행사 제품 4개 구매시 6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품을 4개 장착하게 되면 GS칼텍스 X 이마트 결합 모바일(1만원)이 지급되며 추천한 고객에게도 동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m)와 타이프로 홈페이지(www.tirepro.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캐스퍼 일렉트릭 '세계 올해의 전기차' 영예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우수한 상품성 등 입증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했다. 월드카 어워즈는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월드카 어워즈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 2개 대륙에서 연간 1만대 넘게 판매한 신차에 후보 자격을 주기 때문에 권위와 상징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이 프리미엄 전기차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을 제치고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49kWh 배터리를

탑재한 인스퍼레이션 모델과 42kWh 배터리를 탑재한 프리미엄 모델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인스퍼레이션 모델은 15인치 휠 및 산입부 인증 기준 315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으며, 120kW 급 충전기 기준 10%에서 80%까지 30분만에 충전이 가능해 여유로운 도심 주행이 가능하다. 월드카 어워즈 수상 부문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 세계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등 6개다. 세계 30개국 자동차 전문가 96명이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해 후보 차량을 시승한 뒤 부문별 자동차를 선정했다.



(왼쪽부터) 이상엽 현대제네시스글로벌비즈니스인담 담당 부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루크 동커블레 현대차그룹 CDO 겸 CCO 사장이 세계 올해의 전기차 수상 기념사를 촬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아의 소형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 작년 EV9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으로는 2022년 아이오닉5, 2023년 아이오닉6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이다. 정현아 기자 aura@

기아, 'The 2025 봉고 III EV' 출시

급속 충전 47분→32분...주행거리 217km 확보

기아는 상품 경쟁력을 높인 소형 전기트럭 'The 2025 봉고 III EV'를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The 2025 봉고 III EV는 고전압 케이블 와이어링을 두겹게 해 기존 주요 볼탄 사항이었던 충전 속도 문제를 해결했다.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하는 속도를 (150kW 급속 충전 기준) 기존 47분에서 32분으로 단축했다.

신규 60.4kWh(킬로와트시) 리튬 이온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217km로 기존보다 6km 늘어난 수준이다. 또 비포장도로 운전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지상고는 10mm 높였고 LED 조명을 충전구 상단에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판매 가격은 4000만원대 중반으로 정부·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적용하면 실제



가격은 2000만원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고 기아는 설명했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5 봉고 III EV는 45년간 국내 소상공인과 함께 온 봉고의 가치를 계승하며 상품성을 강화한 모델"이라며 "빨라진 충전 속도와 늘어난 주행거리, 향상된 편의성으로 전기상용차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